

“광주시립미술관장 전문 경영인 모실 것”

이용섭 시장 “연고주의·낙하산 인사 배제”

산하기관장 인사 전문성·리더십·방향성 강조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를 앞두고 관장 적격자를 ‘지역미술계를 혁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의 미술관 전문경영인’으로 한정했다. 전문성과 리더십, 민선 7기와의 방향성 일치 등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6면〉**

이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연고주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최고의 미술관 전문경영

인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과정에 일찍 관여하지 않고 지역미술계의 혁신을 이끌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전문경영인 등을 임명해온 다른 사·도와 달리 줄곧 초기를 제외하고 지역 출신 화가들이 맡아왔다”며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역 내 카르텔 형성과 분열적 요소 등 문제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광주미술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미술계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립미술관장이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성을 갖춘 관장 임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라는 한계, 낮은 연봉 등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는 “광주가 지방인 데다 연봉도 상당히 낮아 (전국적인 인물을 모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엔날레도 있고 문화도시여서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연봉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등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는 22일까지 원서 접수, 23~24일 서류전형, 9월 4일 면접,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날 이 시장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낙하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번 미술관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전문성, 리더십, 민선 7기 방향성 등을 갖췄다면 낙하산이든 아니든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적발된 광주디자인센터장을 직위해제할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11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광학문자판독기 등 24종

광주시는 올해 장애인 11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광학문자판독기 등 24종 110대를 보급했다.

시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특수 S/W를 보급하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올해 보급된 기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광학문자판독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겐 터치모니터 1종, 청각·언어장애인에겐 의사소통 보조기기, 영상전화기 등 14종

이다. 특히 인기가 많은 노바캡리더, 한소네 등 장애유형별 고가보조기기기도 13명에게 지원했다.

한편 시는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27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급, 경제적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횟수, 활용도 등 기준에 따라 보조공학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5명의 최종 심사를 거쳐 110명을 선정했다.

100만원 이상 고가 기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심층 조사의 결과와 심사에 반영했다. 기기 가격의 80%는 시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절반을 추가 지원받아 최종 구매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영평가 꼴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책임자 문책론

공단 체질 근본적 개선 지적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공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지방공기업평가가원 발표된 ‘2017년 전국 37개 자치구 공기업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평가 결과 청소사업부의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1인당 시설관리 면적은 감소했다. 또, 청소차량의 사고 증가율, 대행사업비 절감률, 유급휴가 운영의 적절성 등에서 감점을 받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경영성과를 세분화해 분석하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책임을 맡고 있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이 과정에서 잔여 임기 보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경우 법적임기가 3년으로 지난해 7월 30일 취임한 만큼 오는 2020년 7월 30일까지가 임기다. 현재 잔여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번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이 과정에서 잔여 임기 보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경우 법적임기가 3년으로 지난해 7월 30일 취임한 만큼 오는 2020년 7월 30일까지가 임기다. 현재 잔여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번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 배홍석 의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이처럼 낮게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집행부 측에 이사장 교체 촉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이사장은 30여년간 공직 근무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해 민행배 전 광산구청장 재직 당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목포서 내일 청춘 씬머 페스티벌 ‘夜(야)놀자~’ 열린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15일 목포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청년예술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청춘마이크’ 전남·광주권 씬머 페스티벌 ‘夜(야)놀자~’를 개최한다.

‘夜놀자~’는 전남문화관광재단 주최, (주)사람과문화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있는날 사업 추진단 후원으로 열린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학력·경력·수상(3無)에 관계없이 열정·재능만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국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단체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사업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하는 버블타이거, 올마이티 후즈, 뽀빠와 아이들, 마술여행, NS JAZZ BAND, 청년예술가 5팀의 공연과 댄스팀 재킷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청년층으로 이뤄진 아트마켓과 청춘마이크 흥보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과동 위생매립장 실태 점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미정)가 3일 오전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을 방문해 시설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4조8443억 추경안 시의회 제출

일자리 창출 청년드림 등 94개 사업 632억 편성

광주시는 당초예산 대비 3304억원(7.3%) 증가한 4조84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7억원(7.4%) 증가한 3조9403억원, 특별회계는 597억원(7.1%) 증가한 9040억원이다.

지방채는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0.7%)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시비반환

금, 상생발전기금 확정분 등 301억원(9.6%) 반영했다. 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471억원(19.2%),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확정분이 반영돼 360억원(2.6%) 증액됐다.

부분별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문화·관광 분야 466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389억원, 경제 관련분야 669억원, 수송·교통분야 8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사업별 예산반영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광주 청년드림 41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1억원, 도심특화 MG부품 및 시스템 개발 16억원 등 94개 사업에 632억원을 편성했다.

또 의료급여지원 128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76억원, 어린이 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38억원 등 복지예산에 389억원을 반영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사업 79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10억원,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구축 23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시설개보수 53억원, 경기장 주변도로 포장 덧씌우기 및 차선 정비 36억원, 관광차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 4억원 등 231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8월 22일부터 광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